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Family, Work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Wives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 교수 이형실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Lee, Hyongsil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work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wives. Data were collected from 258 full-time employe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63.6% of respondents were in their 30s and 36.4% in their 40s. Educational and income level was above average. Employed wives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stress and satisfaction in parenting than in marital relationships and work.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marital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work satisfaction for employed wives in dual-earner couples. Work stress had negative effects on parenting satisfaction. However,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influenced by parenting stress and work stres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work and parenting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employed wives. The size of effects were found to be greater for marital and work satisfaction than for parenting satisfaction.

◆ key word: 가족생활, 직업생활, 스트레스, 만족, 심리적 복지

* 이 논문은 199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기혼 취업자에게 있어서 가족과 직업 생활의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기혼 취업여성은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나, 실제로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취업주부 및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취업여성이 수행하는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 갈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생활의 경험을 밝힌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기혼 취업여성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의 경험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있어 가장 밀접한 환경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이다. 가족과 더불어 직업은 개인의 생활에서 만족이나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다. 또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직업생활에서의 경험은 가족생활이나 가족원간 관계와 관련된다. 그러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가족과 직업생활을 분리된 영역 또는 서로 별 관련성이 없는 영역으로 생각해왔다. 가족생활과 직업생활간 관계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사실상 관련 정책들은 가족과 직업생활의 변화하는 현실에 따르지 못해왔다.

특히 지금까지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로 규명되지 않았다. 주로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취업을 하는 것이 자녀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으나 직업특성이나 직업만족을 제외

하고 직업생활을 다룬 연구는 별로 없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취업여성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직업과 관련된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규명함으로써 기혼 취업여성이 갖는 역할들을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최근의 스트레스 연구는 심리적 복지에 대한 가족과 직업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을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있어서 가족과 직업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 그리고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또한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의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가족과 직업생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과 직업생활을 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기혼 취업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

기혼 취업여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업 역할의 요구와 가족역할의 요구간 상호 비양립성 때문에 생기는 직업과 가족간 긴장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MacDermid, 1998). 따라서 직업 역할 내에서 겪는 갈등보다는 직업과 가족역할 간 갈등을 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과 가족간 긴장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과 직업생활의 상호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제한한다.

점차 가족과 직업생활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Greenhaus(1989)에 따르면 가족과 직업간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과 직업간 상호작용의 역기능적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과 직업을 서로 구속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은 가족과 직업이 개인의 생활에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간과할 수 있다(Bielby, 1992).

Voydanoff(1990)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가족생활 만족과 직업생활 만족간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불만족하면 이로 인해 가족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또한 직업스트레스를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직업생활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무시되어 왔다. Bolger, DeLongis, Kessler와 Wethington(1989)은 가족에 대한 직업생활의 영향이 직업생활에 대한 가족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가족 특성, 그리고 직업적 특성의 다양성 때문에 가족과 직업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 인과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Crouter & Manke, 1994)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많은 연구들은 직업생활 경험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Voydanoff와 Donnelly(1988) 연구에 의하면 직업 불안정성은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nett(1994)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남성과 여성은 가족관계에서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하며, 직업생활 만족은 부부관계 만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스트레스는 가족영역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다(Kinnunen, Gerris, & Vermulst, 1996). 직업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은 다른 영역 즉, 가족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만족스러운 직업생활 경험은 자녀와의 갈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켰다(Barnett & Marshall, 1992).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Tenbrunsel, Brett, Maoz,

Stroh, & Reilly, 1995) 남성의 경우 직업과 가족관계가 상호적이거나, 여성의 경우 가족에서 직업으로의 일방적 관계가 나타났다. Barling(1990)에 의하면 직업만족과 결혼만족간 관계는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결혼만족에 다른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arling과 Macewen(1992)의 연구에서도 직업경험과 결혼기능성간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과 직업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과 직업스트레스요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다루어 왔다. 여러 연구들이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간의 관계를 밝혔다 (Barnett & Baruch, 1985; Thoits, 1984). 전영자(1997)의 연구에서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부부관계 영역에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인지재구조화 대처방안을 사용하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하현숙과 김득성(1996)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서 겪는 역할갈등과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간 관련성이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즉, 남편과 부인의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한편,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들은 단지 여성의 취업이 낮은 심리적 복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역할 스트레스 즉, 직업, 부부, 부모 역할스트레스들이 함께 심리적 복지를 낮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심리적 복지 문제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존감과 유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Barnett & Marshall, 1991; Wilsnack & Cheloha, 1987)도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에서 여러 역할들의 중요성과 이들 역할에서의 기능성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는 직업 역할 기능성이 부모역할이나 가족 역할 기능성보다 더 중요한 반면, 부모역할이나 가족 역

할기능성은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직업 역할기능성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Barnett, Marshall, Raudenbush, & Brennan, 1993; Wethington & Kessler, 1989). Windle과 Dumenci(1997)의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우에 직업 역할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스트레스는 맞벌이 부부의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직업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만족 및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 그리고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 그리고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간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각기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은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및 인접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가 있는 30-40대 기혼 취

업여성 258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0세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0.9%, 고졸이 35.8%이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12.5년이고 자녀수는 평균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398.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전문직이 26.0%, 관리직 및 사무직이 23.2%, 자영업이 17.3%, 서비스직이 11.0%, 그리고 생산직이 7.1%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 직업, 자녀수, 자녀의 연령등)과 함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스트레스와 만족, 심리적 복지에 관한 조사도구를 포함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스트레스는 Pearlin과 Schooler(1978)가 만든 척도를 참고로 하여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5문항, 부모역할 스트레스 5문항, 그리고 직업역할에서 겪는 스트레스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각각 .67, .75, .51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 척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의 결혼만족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1)를 유은희(1991)가 축약한 형을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관계 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직업생활 만족은 직업생활의 여러 측면 즉, 보수, 승진기회, 근무환경,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부모역할 만족 척도는 신기영(199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5점 Likert형의 5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역할 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심리적 복지는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수정, 보완하여 5점 Likert형의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복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은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의 스트레스와 만족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의 스트레스와 만족, 그리고 심리적 복지간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연령	30대	164 (63.6)
	40대	94 (36.4)
교육수준	국졸	3 (1.2)
	중졸	35 (13.8)
	고졸	91 (35.8)
	대졸	104 (40.9)
	대학원이상	21 (8.3)
직업	전문직	66 (26.0)
	사무직	59 (23.2)
	자영업	44 (17.3)
	서비스직	28 (11.0)
	생산직 등 기타	48 (19.0)
자녀수	1명	62 (24.1)
	2명	119 (46.3)
	3명	58 (22.6)
	4명이상	13 (5.1)

IV. 연구결과

1.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

먼저,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표 2),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직업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부부관계 스트레스 점수보다 높았다.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나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기혼 취업여성은 부부관계나 직업생활보다 부모역할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역할에 대하여 더 큰 만족을 보고하나 한편으로는 부모역할을 더 부담스럽게 인식한다는 Goetting (1986)의 문헌고찰 결과와 일관된다고 하겠다.

〈표 2〉 변수들의 평균점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부관계 스트레스	11.90	3.58	6-22
부모역할 스트레스	14.43	3.80	5-24
직업 스트레스	13.55	2.81	5-21
부부관계 만족	32.19	5.81	12-45
부모역할 만족	21.32	2.81	13-25
직업생활 만족	16.31	2.85	7-25
심리적 복지	35.74	7.17	10-50

2.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간 관계

연구문제 1: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만족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기혼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생활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 그리고 직업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혼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에서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직업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서로 관련성이 높았다.

부부관계 만족과 부모역할 만족, 그리고 직업생활 만족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은 부모역할 만족과, 또한 직업생활 만족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모역할 만족과 직업생활 만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중에서 부부관계 만족과 직업생활 만족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과 결혼만족간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Barling(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부부관계스트레스	1.00						
2. 부모역할스트레스	.21**	1.00					
3. 직업스트레스	.22***	.36***	1.00				
4. 부부관계 만족	-.57***	-.17**	-.14*	1.00			
5. 부모역할 만족	-.14*	-.26***	-.19**	.13*	1.00		
6. 직업생활 만족	-.24***	-.28***	-.28***	.30***	.06	1.00	
7. 심리적 복지	-.45***	-.27***	-.40***	.50***	.21**	.47***	1.00

*p < .05 **p < .01 ***p < .001

3.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각각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4).

이 느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은 30대와 40대로, 이 시기는 특히 자녀양육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직업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혼취업여성은 직업생활에서 부담을

〈표 4〉 가족 및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만족			부모역할만족			직업생활만족	
	b	β		b	β		b	β
부모역할 스트레스	-.17	-.11	부부관계 스트레스	-.07	-.09	부부관계 스트레스	-.17	-.22***
직업 스트레스	-.20	-.09	직업 스트레스	-.19	-.19**	부모역할 스트레스	-.17	-.22***
R ²	.02			.05			.11	

* p < .05 **p < .01 ***p < .001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직업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모두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생활 만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취업여성은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관계 만족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와 약간의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직업역할 스트레스 중에서는 직업 스트레스만이 부모역할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이 직업 스트레스를 많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낮으며, 또한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직업생활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생활은 부모역할 경험에, 그리고 가족생활 경험은 직업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Bolger 등(1989)이 제시한 바와 다르게 직업생활에 미치는 가족생활 경험의 영향이 가족생활에 대한 직업생활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4. 가족 및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부부관계 만족, 부모역할 만족, 그리고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이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족 및 직업생활 만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복지	
	b	β
부부관계 만족	.49	.40***
부모역할 만족	.28	.12*
직업생활 만족	.73	.30***
R ²	.34	

*p < .05 **p < .01 ***p < .001

부부관계 만족과 부모역할 만족, 그리고 직업생활 만족 모두 기혼 취업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은 부부관계, 부모역할과 직업생활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직업역할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힌 Windle과 Dumenci(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부부관계 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직업생활 만족, 부모역할 만족의 순이었다. 부부관계 만족, 부모역할 만족, 그리고 직업생활 만족은 심리적 복지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부부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업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 만족과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에 비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은 심리적 건강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나 가족 역할이 직업역할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30-40대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또한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직업생활 만족에 부적 영향을 주고, 직업생활의 스트레스도 부모역할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는 부부관계 만족에 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관계 스트레스도 부모역할 만족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기혼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부부관계의 경험은 부모역할보다는 직업생활 경험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기혼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에서의 부부관계와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직업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고 직업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생활의 경험은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경험도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관계가 상호적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의 경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보다는 부부관계 만족과 직업생활 만족이 기혼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부관계, 부모역할, 그리고 직업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각기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 그리고 심리적 복지간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갖는 중재효과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은 기혼 취업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 취업여성이 처한 직장 상황이나 가족상황이 비전문직의 기혼여성과는 다르므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이 직종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의 직종별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뿐만 아니라 기혼남성들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후속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신기영 (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 339-356.

하현숙, 김득성 (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 309-326.

Barling, J. (1990). *Employment,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London: John Wiley.

- Barling, J., & Macewen, K. E. (1992). Linking work experiences to facets of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573-583.
- Barnett, R. C. (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arnett, R. C., & Baruch, G. 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5-145.
- Barnett, R. C., & Marshall, N. L.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amily roles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 Frankenhaeuser, U. Lundberg, & M. Chesney(Eds.), *Women, work and health: Stress and opportunities* (pp. 111-1:36). New York: Plenum Press.
- Barnett, R. C. & Marshall, N. L. (1992). Worker and mother roles, spillover effec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omen and Health*, 18, 9-40.
- Barnett, R. C., Marshall, N. L., Raudenbush, S. W., & Brennan, R. T. (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94-806.
- Bielby, D. D. (1992). Commitment to work and famil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81-302.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router, A. C., & Manke, B. (1994). The changing American workplace: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17-124.
- Kinnunen, U., Gerris, J., & Vermulst, A. (1996). Work

- experiences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 Pearlin, L.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Tenbrunsel, A. E., Brett, J. M., Maoz, E., Stroh, L. K., & Reilly, A. H. (1995). Dynamic and static work-family relationship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233-246.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09-1115.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88). Economic distress, family coping, and quality of family life. In P. Voydanoff & L. C. Majka (Eds.),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pp. 97-116). Newbury Park, CA: Sage.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27-546.
- Wilsnack, R. W., & Cheloha, R. (1987). Women's roles and problem drinking across the life span. *Social Problems*, 34, 231-248.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